

# <蔡世英이야기>를 통해본 16세기 風流世態의 한 단면\*

조 광 국\*\*

## 차 례

- |                       |                |
|-----------------------|----------------|
| I. 문제제기               | IV. 풍류세대의 주변인물 |
| II. <채세영이야기>의 구성적 특징  | V. 마무리         |
| III. <채세영이야기>의 문화적 담론 |                |

## I. 문제제기

필자는 최근 조선시대 양반의식의 하나로 風流意識을 상징하고 이 풍류의식은 기녀를 賤妓로 보려는 조선시대의 社會制度 및 身分秩序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양반의식의 하나로서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다는 주장을 펼쳤다.<sup>1)</sup>

양반의 풍류의식이 당대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유리되어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당시의 사회문화적 국면의 한켠에 풍류세대가 자리 잡고 있음을 상정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조선시대의 풍류세대를 단적으로 무엇

\* 이 論文은 황필상장학재단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에 대해 기꺼이 토론힬해주신 정준식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1)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이라고 제시하고 이를 설명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풍류세대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는 이끌어낼 수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가 무려 500년 정도에 달하는 긴 기간이어서 그 동안 풍류세대가 획일적이지 않고 역사의 국면마다 여러 형태를 보였을 것이어서, 풍류세대에 대한 논의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16세기 양반의 풍류세대를 풍속의 차원에서 논의함으로써 풍류세대 규명의 출발점을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비교적 짧은 이야기인 <蔡世英이야기>를 대상으로 하여 실마리를 풀어가려 한다. <채세영 이야기>가 16세기 양반 풍류세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겠지만, 당대 풍류세대를 살펴보는 데 적절하고도 유효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이야기는 양반·기녀의 풍류세대를 일정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 그것도 16세기 양반 풍류세대의 한 모습을 기념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각을 취한다. 이미 앞서 어느 정도 시사되었듯이 하나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된 絶代世界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작품은 그 작품을 둘러싼 社會文化와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그 나름의 作品世界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채세영이야기>는 비교적 짧은 逸話에 속하지만 문학작품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잘 담고 있다.

여기서 하나 더 깊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짙막한 문학 자료는 그 자체가 당대 문화현상의 하나라는 시각을 취하고자 한다.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작품 외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문학 자료가 문화현상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문학과 문화는 서로 상보적인 영향 하에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문화론적 연구방법 중 미시적 방법으로 이러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sup>2)</sup> 이 중에서 클리포드 기어츠는 그의 저서 『문화의 해석』

2) 김진송,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로버트 단턴, 『고양이 대학살』, 문학과 지성사, 1996; 린 헌트, 『프랑스혁명의 가족 로망스』, 새물결, 1999; 시드니 민츠, 『설탕과 권력』, 지호, 1998; 클리포드 기어츠, 『문화의 해석』, 까치, 1998.

에서 여러 종류의 윙크에 대해 장황하게 언급하고 있다. ‘눈 깜박거림’, ‘윙크’, 그리고 ‘윙크를 흉내낸 것’ 등은 현상적으로 눈을 깜박거린다는 점에서는 같게 보이지만, 심층적으로는 그 의미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하나의 현상이라도 편폭을 넓혀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 층위의 문화의 입장에서 현상을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면 <채세영이야기>에 대하여 보다 심화된 논의를 펼칠 수 있다. 그 동안의 연구자들은 대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웃음을 다른 풍자 이야기들에 나오는 웃음과 비슷하게 취급하여 풍자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양반의 훼손과 그에 대한 풍자’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거론하였을 정도이다. 즉 <채세영이야기>를 毀節小說의 앞 단계로 설정하여 ‘毀節=諷刺’의 틀로 바라보았던 것이다.<sup>3)</sup> 필자 역시 이러한 연결고리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담론 외에도 다른 차원의 담론이 들어 있어 이 이야기는 다층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담론에 함축되어 있는 시대적 의미가 독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밝히기 위해 여기에서는 다음 차례를 밟기로 한다. 첫째, <채세영이야기>의 구성적 특징을 짚어보기로 한다. 이 이야기는 여타의 여러 각편으로도 전하고 있는데, 대체로 毀節共謀와 트릭, 그리고 毀節當事者の 이별 눈물과 주변인의 웃음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각편에 나오는 주변인들의 웃음은 훼손 대상인 양반을 풍자하는 성향을 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들었던 기녀와 헤어지는 양반관료에 대해 인지상정의 성향도 띠는 것임을 밝혀보기로 한다.

둘째, 16세기 양반의 풍류세대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당시의 사회문화적 정황을 면밀히 고찰해봄으로써 <채세영이야기>에 담겨 있는 문화적 담론에 대해 치밀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기녀로 守廳을 들게 하는 지방 풍속’과 ‘그러한 풍속을 금하는 조정의 단속’이 서로 충돌하던 사회문화적 정황을 배경으로 하여 양반관료가 기녀와의 애정 내지는 유희 행각을 펼치고 있음은

3) 그 대표적인 예로 여세주가 있다(여세주, 『남성훼손소설의 실상』, 국학자료원, 1995, 69-79쪽).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세영이야기>에 나타난 양반 풍류세대의 양상과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해보고, 확대하여 그것이 16세기의 한계일 수도 있음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작품 자체를 사회문화와 단절된 절대적 세계로 보지 않고 작품이 당대 사회문화적 상황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점, 나아가 작품과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존재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채세영이야기>의 구성적 특징

<채세영이야기>는 1588년경 權應仁이 지은 『송계만록』을 비롯하여, 『어우야담』, 『기문총화』, 『동야회집』 등에 전한다.<sup>4)</sup> 맨 처음 채록된 것으로 보이는 『송계만록』에 실린 이야기의 전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정덕 기묘년 무렵에 열읍의 기생들을 폐지하였다. 한림 채세영 공이 曠史官으로 성주에 갔다. 엄중히 명령하여 기생을 숙소에 가까이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의 목사 金佑 공은 門蔭으로 출신하였는데, 호걸스런 선비였다. 몰래 기생 勝杜秋를 시켜 매일 저녁 숙소 앞을 지나가며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수일이 지나니, 한림이 창문을 반쯤 열고 고개를 빼 보고서는 小吏에게 말하기를, “저게 어떤 사람이기에 밤마다 이곳을 지나가는고?” 하니, 대답하기를, “집이 담 밖에 있으며 敎坊에 드나드는 길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기생이 이 말을 듣고, 거짓으로 놀라 달아나다가 일부러 땅에 넘어졌다. 모습이 明媚하고 衣裳이 깨끗하였다. 한림이 몰래 小吏를 시켜 방안으로 끌어들었다. 이때부터 밤에 들어와 새벽에 돌아가곤 하여 정이 무르익었다. 朝廷에 돌아가는 날, 목사가 성문 밖에 송별연을 벌였다. 몇몇 기생을 목사 뒤에 앉혀 술을 데우는 심부름을 하는 모양을 하여 한림과 상대하도록 하니, 한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눈물이 흘렀다. 한림이 자신의 눈물이 땅에 떨어질까 염려하여 얼굴을 점점 높이 들었다가 잠

4) <蔡世英以內翰>, 장서각본 『於野談』; <蔡壽以內翰>, 만종재본 『於野談』; <懶齋蔡襄靖壽>, 연세대본 『記聞叢話』; <內翰抑屋忍涕淚>, 가람본 『東野彙輯』. 다른 곳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전하지만 대동소이한 까닭에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을 선택하였다.

간 낮추는데,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목사가 앞으로 나와 손을 잡으며 말하기를, “내가 이 길가 읍에 부임한 지 3년인데 아직도 포쇄관처럼 큰 눈물은 보지 못하였소.” 하고는, 서로들 손을 치며 웃었다.(正德己卯年間 廢列邑 旣而 蔡翰林世英公 曠史於星州 嚴勅綺羅不近館舍 牧使金公佑 發身門蔭豪傑之士也 密令妓勝杜秋 每夕行歌 過于館前居數日 翰林半拓小窓 延頸窺見 謂小吏曰 彼何人斯連夜經行 答曰 家在牆外 出入教坊 路由於此 妓聞此語 佯若驚走 故仆于地 容姿明媚 衣裳鮮楚 翰林陰誘小吏 引入帳中 自此夜入晨歸 歡情兩洽 還朝之日 牧使設祖道於城門外 生數妓於牧使之後 作煖酒之狀 與翰林相對 瞪目直視 泣數行下 翰林自恐淚墮 仰面漸高 乍俯則淚下如雨 牧使前席執手 曰 余來茲路傍之邑 三年於此 曾未見淚之大者如曝曬也 相與拍手罄歡)

각편에 따라 주인공 ‘채세영’이 ‘蔡壽’로 달리 나타나기도 하고, 그가 내려간 지방이 ‘성주’가 아니라 ‘전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채수’는 ‘채세영’보다 앞선 사람이지만 둘 다 동시대 인물이어서 혼동을 일으킬 만하고,<sup>6)</sup> ‘전주’와 ‘성주’는 모두 조선시대 史庫가 있는 지역이어서 혼동을 일으킬 만하다. 이는 구비전승 되던 것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들 각편들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송계만록』	②장서각본 「어우야담」	③만종재본 「어우야담」	④『기문총화』	⑤『동야취집』
㉠채세영이 성주에 내려가 기녀를 멀리함.	채세영이 전주로 내려감.	채수가 전주로 내려감.	채수가 전주로 내려감.	채수가 전주로 내려감.
㉡목사 김공이 기녀를 시켜 채공을 미혹하게 함.	府尹 判官 旣而 公모하여, 상노비를 속임.	府尹 判官 旣而 公모하여, 상노비를 속임.	관찰사 判官, 기녀가 공모함.	府尹 旣而와 공모하여 상을 당한 사노비로 속임.
㉢채공이 기녀 송두주와 연일 맺음. 채관계를 맺음.	연일 관계를 맺다가 더 가까이 지냄.	연일 관계를 맺다가 더 가까이 지냄.	기녀와 흡족한 애정관계를 맺음.	연일 관계를 맺다가 연석에서 그녀를 보고 팔려왔다고 여김.
㉣이별시에 채공이 눈물을 흘림.	누각을 보고 인생이 무상하다면서 눈물 흘림.	정자를 보고 인생이 무상하다면서 눈물 흘림.	역사를 보고 인생이 무상하다면서 눈물 흘림.	누각을 보고 인생이 무상하다면서 눈물 흘림.
㉤서로 손뼉 치며 웃음.	읍인들이 웃음.	읍인들이 웃음.	읍인들이 눈물샘을 말리러 왔다 웃음.	읍인들이 웃음.

- 5) 권웅인, 『송계만록』(『국역대동야승』T4, 민족문화추진회, 1975, 286-287쪽).
- 6) <채세영이야기>의 시대 배경이 中宗 14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채세영’이 맞다. 참고로 蔡壽는 중종 즉위 후에 반정 3등 공신에 올라 인천군에 제수되었으며, 한편 그는 職事를 맡지 않고 고향에 물러가기를 청해 5년 동안 한가히 지내다가 中宗 10년에 별세하였다(『중종실록』권23, 10년 11월 경인).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채록본이어서 실제 인물이 채세영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표에서 보듯이 각편들은 공히 毀節共謀와 트릭, 毀節當事者의 기녀와의 애정 행각, 이별시 남주인공의 눈물, 그리고 주변인들의 웃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sup>7)</sup>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흥미가 더해진다.

①에서는 채세영을 훼손시키기 위해 목사와 기녀가 공모한다. 기녀는 ‘기녀의 接近 금지 명령’을 어기고 그의 거처를 지나다가 들킨 것으로 꾸미고 달아나다가 넘어지는 체한다. 이러한 트릭으로 승두추는 기녀라는 신분을 숨기지 않고서도 채세영에게 다가설 수 있었으며, 마침내 채세영은 공모자들에게 속아 승두추와 육체관계를 맺게 된다. 채세영은 기녀와 이별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 이러한 이별의 눈물은 기녀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채세영의 처음 의지와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극적인 반전 효과를 낳는다. 그로 인해 주변인들의 웃음을 사게 된다.

②③④⑤에서는 ①에 비해 공모와 트릭이 강화된다. 공모자가 늘어나는 바, 府尹과 기녀의 공모에 判官이 가세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모자 수의 증가에 걸맞게 주인공 채세영(혹은 채수)을 속이는 트릭의 정도도 강해지는데, 기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남편의 상을 당한, 재상가의 私奴婢로 위장된다. 이렇게 강화된 공모와 트릭은 그 후에 일어나는 채세영(혹은 채수)의 반응을 더욱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 연계된다. 채세영(혹은 채수)이 처음에는 자신이 가까이 한 여성이 기녀가 아닌 것으로 알고 관계를 맺었지만, 나중에 속았음을 알고 그 때는 노골적으로 기녀를 가까이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기녀와 이별할 때 채세영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연계되어 타인의 더 많은 웃음을 유발하기에 이르는데, 이는 주인공의 僞善을 폭로하는 것이라는 해석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②③④⑤에서처럼 기녀와의 이별이 슬퍼서 울었는데도 오래된 누각을 지은 사람이 죽었을 것을 생각하여 인생무상을 느껴 운다고 한 것에서나, 또한 ④에서처럼 주인공이 史書を 말리러 온 것이 아니라 눈물샘을 말리러 왔다는 주변인들의 장난기 섞인 말에서, 선행연구자들은 채세영의 위선적인 모습을 읽어냈던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①②③④⑤

7) “共謀”라는 용어는 김종철이 배비장전 유형의 내적 구조가 “내기와 공모의 구조”라고 한 데서 빌려왔다(김종철, 『배비장전유형의 소설연구』,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5, 206-212쪽).

다섯 각편이 “男性毀節”의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sup>8)</sup> 그에 따라 이 이야기는 도덕군자인 채하는 양반의 위선에 대한 풍자를 골자로 한다고 볼 수 있다.<sup>9)</sup>

선행연구자들의 견해는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지만 이에 더하여 다음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男性毀節”의 구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훼손당한 남성이 ‘본격적인’ 풍자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작품 내용 중의 주변인물들에게 훼손당한 남 주인공의 행위가 웃음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대하는 작품 외적 청중 또는 독자들에게도 웃음을 일으키지만, 작품 내외의 인물들의 웃음이 그다지 ‘비웃음’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좀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편 ①로 돌아가 보기로 한다. ①의 <채세영이야기>의 뒤에 <고경진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는데,<sup>10)</sup>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명종 때 한림 고경진이 기생 설매향에게 정이 들었다가 헤어질 때에 흘린 눈물이 채세영보다 적지 않았다. 이에 권웅인이 ‘떠나는 길 두 줄기 흐르는 눈물 괴이히 여기지 말 것이 채사와 고군이 모범이네. (臨歧莫怪雙淚垂 蔡史高君是伐柯)’라는 시를 지었다. 승두추가 나이 80이 되도록 채세영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sup>11)</sup>

<고경진이야기>에서 중심적인 내용은 고경진이 사랑하던 설매향과 헤어지

---

8) 김기동은 서울대본 <정향전>을 번역 소개하면서 ‘남성훼손담’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김기동, 『문학사상』~통권 129, 1983년 7월호). 그 이후 남성훼손을 다룬 논문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원수, 『<삼선기>의 종합적 고찰』, 『문학과 언어』7,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6; 박일용, 『조선후기 훼손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학보』51, 52, 일지사, 1988; 김종철, 『배비장전유형의 소설연구』, 『관악어문연구』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5; 여세주, 『정남훼손설화의 유형성과 그 의미』, 『어문학』50, 한국어문학회, 1989. 5; 이원수, 『남성훼손설화의 실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21, 국어교육연구회, 1989. 12; 여세주, 『남성훼손설화의 실상』, 국학자료원, 1995; 김종철, 『중세 해체기의 두 웃음』,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9) 여세주, 앞의 책, 69-71쪽.

10) <채세영이야기>의 뒤에 <고경진이야기>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녀의 신분을 속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편 ①은 ②③④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실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나아가 덜 과장적인 이야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嘉靖戊午年>, 『송계만록』(『국역대동야승』14, 287-288쪽).

면서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고경진에 국한되지 않고 그 앞의 채세영의 이야기까지 받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고경진의 눈물이 채세영의 눈물과 같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둘째 승두추가 80이 되도록 채세영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부연되기도 한다. <고경진이야기>는 그 앞에서 다루어진 <채세영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채세영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채세영이야기>의 周邊人物들의 웃음의 성격을 보다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다.

고경진의 눈물과 채세영의 눈물은 흔히 사랑하던 기녀와 이별하면서 흘린 눈물이며 또한 기녀에 대한 진솔한 애정에서 나온 눈물이다. 이로 보건대 주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채세영을 보고 웃었다고 하여, 그 웃음이 채세영의 위선에 대한 비웃음 내지는 풍자의 성향을 띠는 웃음이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다. 이야기 구조상 이 웃음은 비웃음과 풍자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의 웃음이라 할 만하며, 오히려 그 웃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슬피 우는 자에 대한 人之常情 차원의 웃음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할 만하다.

이와 연계하여 채세영(혹은 채수)이라는 인물의 상반되는 모습들, 즉 처음에 기녀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것과 그 이후 기녀의 수청풍속에 폭 젖게 된 것, 이 대조적인 형상도 다층적인 면을 담고 있다. 이 대조적인 형상은, 한편 채세영의 위선을 폭로하는 요소들로서 조짐을 보이며, 다른 한편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악의 없는 笑話를 구성하는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제 이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정황을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정합성을 확보해보기로 한다.

### Ⅲ. <채세영이야기>의 문화적 담론

<채세영이야기>의 각편들 중, ①은 正德 己卯年이 시대적 배경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이야기가 逸話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화 속의 시대적 배경이 옳지 않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正德 己卯年은 中宗 14년(1519년)인데, 당시

조정에서는 기녀와 향락을 일삼은 관리를 처벌하라는 상소가 잇따랐다. 그에 따라 관리들의 처벌이 뒤따랐는데, 단적인 예를 들면, 같은 해 충청감사 柳雲은 임기가 다하여 돌아올 때 진천에서 기녀를 대동하고 풍악을 벌였다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 遞職당하고 만다.<sup>12)</sup>

기녀제도를 革罷하자는 주장은 연산조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中宗 즉위 때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 연산군은 기녀를 運平이라 하고 그러한 운평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던 바, 1505년(연산11)에 대내에 들인 기녀를 흥청, 가흥청, 운평, 계평, 채흥, 부화, 흠려 따위로 나누어 불렀으며, 7원 3각을 두어 기녀의 거처를 삼았기도 했다. 그는 채흥준체찰사를 전국으로 보내어 사대부의 妾, 良家女, 公私賤, 娼妓 등을 샅샅이 뽑아 올리게 하였는데, 그 수효가 거의 만에 달했고, 기녀를 뒷바라지하는 급사, 수중, 방비 등의 수효도 그에 달했을 정도였다.<sup>13)</sup> 그로 인해 풍속적인 면,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 면 등 다방면에 걸쳐 그 폐단이 심해졌다.

다음은 왕의 총애를 받는 기녀들에 의해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명하여 이계산의 진주를 받아들이고 관가의 면포로 값을 곱쳐서 주게 하였다. 그 때 큰 장사치가 흥청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고 모든 진기하고 보배로운 물건을 하루도 빠짐없이 바쳐서 이익을 만 배로 거두니, 국고가 다하였다.<sup>14)</sup>

“少老가 들인 진주 3,200개와 蒙民이 들인 진주 4,800개를 호조에 명하여 값을 주게 하라” 하였다. 큰 장사치들이 흥청에게 뇌물을 후히 주어 주옥을 납품하고 값을 백 배나 받아내므로 府庫가 텅 비었다.<sup>15)</sup>

이처럼 왕의 총애를 받는 興淸들이 장사치들과 짜고 거래를 하므로 국고가 고갈될 정도였고, 사회 정의와 경제 질서가 교란될 정도였던 것이다.

중종반정과 함께 연산군 시절의 기녀제도는 연산군 이전의 시절로 축소되었다. 흥청과 운평 등은 석방하도록 하였으며, 일찍이 흥청에게 주었던 내탕(內

12) 『중종실록』 권36, 14년 9월 기유·경술.

13) 『연산군일기』 권63, 12년 9월 기묘; 『중종실록』 권1, 1년 9월 무인.

14) 『연산군일기』 권58, 11년 6월 임술.

15) 『연산군일기』 권59, 11년 8월 갑자.

幣)의 하사품 중 보물을 조사하여 반납하게 하였다.<sup>16)</sup> 연산의 총애를 받던 나인 가운데 公賤은 본사로 내려보내고, 私賤은 본주인에게 돌려보냈으며, 기너는 공친의 예에 의거하여 해당 관아로 복속시켰다.<sup>17)</sup> 또한 연산군의 나인의 族親에게 벌을 주었고, 나인에게 빌붙어 관직을 취하였던 직장 최수광 등 33인을 추고하여 죄를 주는 등 관리들을 대상으로 그 정화작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sup>18)</sup>

中宗 5년(1510년) 10월, 11월 女樂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었다. 비록 전면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正殿에 한하여 여악을 폐지하기도 하였다.<sup>19)</sup> 또한 중종 13년 왕은 함경도 평안도 이외의 지방에서는 기너를 혁파하도록 하였으며,<sup>20)</sup> 그 일환으로 중종 14년에 군사들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연변에는 기너 대신에 관비를 두는 것을 검토하게 했다.<sup>21)</sup>

이러한 과정에서 中宗 13년에 악장에 들어 있던 <동동> <정읍사> <처용무> <영산회상> <본사찬> <미타찬> 등 음탕한 내용이나 불교와 관계있는 노래를 빼고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sup>22)</sup> 그 중 <동동>은 男女淫詞에 가까운 것이라 하여 뺐는데, 이는 사회의 풍속을 쇠신하기 위함이었다. 기너 혁파가 철저히 단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너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중종 재위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sup>23)</sup> 그 중에서도 중종 즉위 직후와 중종 14년 전후에 보다 강하게 일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종 재위 기간 동안 풍속 정화 운동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었는지가 궁금하다. 그러한 풍속 정화 운동 내지는 기너제도 혁파론이 관철되어 실제 단속으로 뒷받침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6) 『중종실록』 권1, 1년 9월 임오.

17) 『중종실록』 권1, 1년 9월 계미.

18) 『중종실록』 권1, 1년 10월 경오; 『중종실록』 권8, 4년 6월 무진.

19) 『중종실록』 권12, 5년 10월 병신·갑진; 11월 정사.

20) 대신들이 반대하여 시행되지 않았음(『중종실록』 권34, 13년 7월 무신).

21) 『중종실록』 권35, 14년 1월 기유.

22) 『중종실록』 권32, 13년 4월 기사.

23) 조광국, 『16세기 초엽 기너제도 개편 양상-연산군 시대를 중심으로-』, 『규장각』 23,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31-46쪽.

中宗 당시 양반관료들이 보여준 기녀와의 풍류 행각, 향락 행각은 그리 도덕적이지 않았다. 中宗 초기에 각 지방으로 되돌려 보내졌거나 極邊으로 정속되었던 홍청들이 관리들에게 수청 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이것은 燕山이 비록 廢主가 되었을지언정 그가 가까이한 기녀들을 지방관들이 관계하는 것은 신하의 도리상 어긋나며 風教를 해치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sup>24)</sup> 그런데도 양반관료들이 이를 어기고 연산이 접한 기녀들을 가까이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종 9년(1514년)에 이르러 燕山이 가까이 하였던 홍청이 양반관료와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일이 잦아졌고, 이에 대해 조정에서 조사하자, 걸러들지 않기 위해 잉태한 아이를 유산시키거나 어린 아이를 살해하는 등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중종 39년(1544년)에는 대부분 홍청이 본래의 취지대로 정조를 지키지 않으므로 다시 身役을 담당케 하였다.<sup>25)</sup> 풍속상 기녀와 양반관료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정화되지 않은 면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왕들의 재위 기간에 비해 중종 재위기간 동안 기녀제도 혁파의 강도가 작지는 않았다. 그러한 조치에 걸러들 양반관료에 대한 처벌이 상황에 따라 엄격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중종시대의 기녀제도 혁파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법제적으로는 강력하게 풍속을 정화하려 하였고 그에 따라 실효를 거두기도 했지만, 한편 세태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었던 것이다.

이제 <채세영이야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文化的 談論은 무엇일가에 대해 논의할 차례이다. 이 이야기는 중종 14년(1519년)을 전후로 기녀제도 혁파의 움직임이 거세었던 조정의 분위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녀 풍속이 자리 잡고 있던 지방의 사회문화적 정황을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세영이야기>에서 이야기 안의 세계와 이야기 밖의 문화현상이 연계되는 것으로 ‘조정에서 관리의 기녀 수청을 금지하였다’는 것(①②), ‘전주로 내려가게 된 채수가 전라도 여러 고을에 기녀 수청을 금지하였다’는 것(③④⑤), 이

24) 『중종실록』 권16, 7년 7월 임진.

25) 『중종실록』 권101, 39년 1월 기미.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남주인공이 자발적으로 기녀 수청을 금지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기녀 수청 금지 내용은 없는데, 여기에는 조정의 기녀 수청 금지 명령에 대한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③④⑤는 ①②의 범주에 넣어 다룰 수 있다. 이들 각편들은 모두가 기녀로 수청을 들게 하는 양반관료들의 풍속과, 그것을 금하여 풍속을 정화하려는 조정의 동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사회문화적 정황을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정황을 고려하여 <채세영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당시 조정관리나 지방관이 기녀 풍속에 젖어 있었는데, 조정에서는 이들 단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으로 나아가는 주인공은 기녀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각오를 단단히 하였다. 그러나 지방 관아에서는 이러한 조정의 단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전처럼 중앙에서 내려온 사신에게 기녀 수청으로 대접하고자 공모하였다. 주인공은 핏에 빠져 마침내 기녀와 즐겁게 지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채세영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柳雲에 대한 이야기도 이러한 사회문화적 정황을 담아내고 있다. 유운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종 14년 기녀와의 유희로 인해 遞職된 인물이다. 『중종실록』에서는 그의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실록편찬의 시각이 기녀 풍속을 단속하고자 하는 조정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이다. 이와는 달리 유운이 긍정적으로 제시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목을 끈다. 다음은 『己卯錄 補遺』에 실린 <유운이야기>이다.

종룡 유운은 성품이 호탕하여서 사소한 예절에 얽매이지 않았다. 17세에 司馬試에 합격하였고 20세에 과거에 올랐는데 장원 다음이었으며 25,6세에는 벌써 3품에 올랐다. 일찍이 충청 여사가 되어서 처음 공주에 들어갔는데, 반드시 (얼굴이) 절묘한 기생이 천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워서 기다렸다. 고을 원은 여사는 딴 사신과 달라 잘못하다가는 서리 같은 위엄을 거슬리게 될까 두려워서 감히 기생을 보내지 못하고, 다만 통인을 문간방에 보내어 호위해서 자도록 하였으므로, 밤이 새도록 기다렸으나 사람 자취조차 없었다. 이른 아침에 떠나면서 절귀한 수를 침병에 적었는데, “공산 태수는 위엄만 겁내었고, 여사의 風流는 알아주지 못하네. 빈 사관에 미인 없이 긴 밤을 새우니, 남쪽으로 온 내 행색이 중보다 담박하여라.” 하여서, 듣는 자가 크게 웃었다.<sup>26)</sup>

이 이야기는 ‘기녀로 수청을 들게 하는 지방 풍속’과 ‘풍속을 사찰하는 어사의 임무’가 서로 충돌하는 사회문화적 정황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관과 어사의 행태 및 심리가 뒤바뀜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구조이다. 어사가 되어 공주에 도착한 유운은 미모의 薦枕妓가 들어오기를 기대하였으나, 공주 원은 어사인 유운을 두려워하여 房妓를 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유운이 밤새도록 기녀를 기다리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쉬움을 시로 표현한 행위와 그 詩의 내용이 제시되는데, 이로 보면 유운이 부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으며, 심지어 호탕하며 사소한 예절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서두의 인물평과 연계되면서 유운이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기까지 하다.

<채세영이야기>와 <유운이야기>는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相異하지만, 두 이야기는 흔히 ‘기녀로 수청을 들게 하는 지방 풍속’과 ‘그러한 풍속을 금하는 조정의 단속’이 서로 충돌하던 사회문화적 정황을 담아내고 있다. 나아가 이들 두 이야기는 양반관료의 기녀와의 유희 내지는 애정행각을 담아내고 있다.

<채세영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 이야기에서 “府尹-判官-기녀-小吏(혹은 통인)”로 이어지는 공모자들과 이들의 궤절 대상이 되는 채세영은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 채세영은 기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녀 수청을 금지하는 조정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며, 공모자들은 채세영을 궤절시키는 자들로서 향락적 기녀풍속에 몰들여 있는 지방관아의 세태를 대변하는 자들이다.

채세영이 처음에는 향락풍속을 단속하려는 입장에 서서 지방 향응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府尹-判官-기녀-소리”의 공모자들에 의해 그 뜻이 꺾이고 말며, 나중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기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이로 보아 채세영이 본래부터 기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인물이 아니라 朝廷의 풍속 정화 시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府尹-判官-기녀-소리(혹은 통인)”로 이어지는 궤절 공모자들과 궤절 대상이 되는 채세영의 대립구조는, ‘지방관아의 기녀풍속’과 ‘조정의 기녀풍속 단속 지침’의 대립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이 분명해진다.

26) <柳雲傳>, 『己卯錄 補遺』上(『국역대동야승』14, 민족문화추진회, 1975, 52쪽). 이 이야기는 <柳恒齋雲>(연세대본 『기문총화』)으로도 전한다.

이와 관련하여 韃靼公모자들이나 주변인이 체세영에 대해 부정적 혹은 적대적 감정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韃靼公모자들은 체세영을 곤궁에 몰아넣으려고 기녀를 붙여준 것이 아니다. 또한 앞항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녀와 이별을 슬퍼하여 우는 체세영을 두고 주변인들이 보여준 웃음은 체세영의 위선을 폭로하는 데서 오는 웃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의 성향을 띠고 있다. 毀節共謀者들이나 주변인들은 체세영의 기녀와의 향락을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양반관료와 기녀 사이의 풍류세태 차원에서 체세영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필자는 앞서 주변인들의 웃음은, 다층적인 성향을 띤다고 지적하면서 선행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용하여, 풍자적인 웃음의 조짐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주변인의 웃음은 풍자적 웃음이 아니라 해학적 웃음에 해당한다. 주변인의 웃음은 체세영이 ‘결국 기녀를 가까이 할 것이면서 자기 숙소에 기녀를 들이지 말라’고 큰소리 쳤던 것에서 기인하기도 하는 바, 과장된 일탈과 과장된 韃靼, 그리고 둘 사이의 큰 낙차에서 참을 수 없는 웃음이 기인하기도 한다. 기녀풍속을 단속하고자 하는 조정의 입장이 오히려 양반들의 일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띠게 되고 여기에서 해학적 웃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요컨대 결말부의 유쾌한 웃음은 ‘양반관료와 기녀가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양반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16세기 당시의 풍류세태를 인정하는 양반의식의 일정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7)</sup>

양반의 풍류세태가 <체세영이야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운이야기>까지 확인된다는 점에서 당시 일상적인 현상의 하나였음을 말해준다. <체세영이야기>는 단지 흥미 차원의, 숨겨진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법제적인 통제력이 발휘되는 때에도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약화시킬 정도로 지방관아에서의 기녀와의 애정행각이 사회문화적으로 日常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반관료의 풍류세태가 16세기 이전과 그 이후에도 사회 일각에서 풍속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 15세기에 중앙의 관리가 지방에 부임하였을

27) 이 문단은 토론자 정준식 선생님의 의견을 수용한 것임.

때에 지방 관리들이 酒食을 준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맞이하였고, 송별할 때에는 경치 좋은 곳을 골라 장막을 치고 소매를 붙잡아 놓지 아니하며 餞別宴을 베풀어주었다. 그 중에는 술이 깨는 날이 없어서 병을 얻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sup>28)</sup>

17세기 숙종연간 이후 위법행위를 단속하려는 강력한 시행령이 발효되었으나 기녀풍속의 현실 앞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680년(숙종6)에 기생을 끼고 노는 지방관들의 향락적 생활이 지속되고 있었다. 지방관들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에 이르렀으나, 조정 신하들은 금지하여도 시행되지 않는다면 나라의 법통을 해칠 것이며 또한 구차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이에 숙종은 禁습을 어긴 자 가운데 심한 자들만을 단속하라고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말았다.<sup>29)</sup>

이러한 양반 풍류의 흐름은 16세기에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그러한 단면을 일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채세영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조정에서 기녀 수청 풍속을 단속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양반관료에 대한 기녀 수청 풍속의 한 단면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 이야기는 채세영과 지방관리들로 대변되는 당시 양반관료들의 풍류세대가 양반문화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풍류세대의 주변인물

한편 양반관료의 풍류세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기녀와 小吏(혹은 통인) 등 하층민의 모습을 일정하게 담아내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기녀 승두추와 小吏는 지방관의 명령에 순종하여 채세영을 유혹하고 마침내 그가 휘절당하도록 한다. 이들은 양반 풍류 세대에 대해 어떤 반감도 일으키지 않는 인물들로서 府尹과 判官의 명령을 착오 없이 수행하는, 충직한 하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뿐, 개인적인 의식이나 인간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제시되지 않

28) 성현, 『용재총화』(『국역대동야승』1, 212-213쪽).

29) 『숙종실록』 권10, 6년 10월 병신.

는다.

특히 기녀 승두추의 목소리나 애환, 의지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다만 지방관청의 수청妓로서의 면모만이 부각될 뿐이다. 이별의 대목에서도 채세영의 슬픈 감정만이 표출될 뿐이지 기녀의 정감은 관심 밖이다. 이는 기녀가 실제로 감정이 일지 않아서일 수도 있으며, 혹은 기녀의 정감이 서술 대상이 될 만큼 비중이 크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sup>30)</sup> 어떤 쪽이든 기녀의 정감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기녀가 양반 애정행각의 수단, 내지는 향락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기녀를 동반하는 양반의 풍류세태가 일시적이지 않고 양반 중심의 풍류세태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녀는 해당 지방관의 명령을 복종해야만 하는 천민이었고, 따라서 지방관이 수청을 요구하였을 때에 기녀들은 현실적으로 수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법적으로 기생이 수청 드는 일은 금지되었다. 이를 어기고 양반관료가 기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관리들은 처벌의 대상이 되었으나, 정작 기녀는 처벌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현실적으로 지방관들의 수청 요구에 대하여 기녀가 거절할 현실적인 힘이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반이 기녀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더라도 그 법이 항상 실효를 거둔 것은 아니었으며, 그 법이 기녀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주지도 못했다. 기녀는 양반관료의 풍류의 대상으로, 유희의 수단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채세영이야기>는 양반관료들의 풍류세태가 기녀를 비롯한 平·賤民의 희생 위에서 향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身分秩序를 한 쪽에서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작중인물이나 서술자 그 누구에게서도 신분질서의 한계를 인식하는 시선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외에 여타의 ‘양반-기녀 관계담’, ‘훤절담’의 내재적 변모과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인물의 역할에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것이 현존하는 자료의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신분질서의 한계가 극복되어 가는 양상을 소설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다.

30) 후자로 보는 편이 옳을 듯하다. <채세영이야기>에 바로 이어지는 <고경진이야기>에서 승두추가 채세영에 대해 말하면서 울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17세기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영전>을<sup>31)</sup> 보자. 이 작품은 일정하게 양반관료의 풍류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그치지 않고 한편으로 宮女 운영이 애정을 회구하는 모습과, 이러한 운영의 애정회구의식이 다른 궁녀들에게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궁녀는 양반관료의 풍류 수단이 아니라 애정을 추구하는 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운영전>은 궁녀의 애정회구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세영이야기>의 한계를 일정하게 극복하고 있다.<sup>32)</sup> 그러나 이야기는 운영이 애정을 지속시키지 못한 채 자결하는 비극적 종말을 맞고 시간을 초월하여 나중에야 만나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는 안평대군으로 대변되는 양반관료의 풍류세태에서는 여전히 궁녀의 개인적 욕망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요컨대 <운영전>에서는 17세기 양반관료의 風流의 견고한 틀 아래서 궁녀의 애정회구의식이 표출되는 정도이다.<sup>33)</sup>

한편 <채세영이야기>와 같이 양반 醜절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중옥전> <오유란전> <배비장전> 등 관아주변을 배경으로 하는 일련의 세태소설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지방관의 기녀 동반 宴飲, 기녀 수청 그리고 중앙사신에 대한 향응과 같은 일종의 세태를 형상화하고 있는데,<sup>34)</sup> 이

31) 국립도서관본 『三芳要路記』에 <왕경룡전> <유영전>(=<운영전>), <상사동기>(=<영영전>)가 수록되어 있는데, 앞면에 ‘大明天啓二十一年’이라는 연대기가 나온다. 이 연대를 필사연대와 관련짓는다면 이들 작품은 늦어도 17세기에 창작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32) <운영전>은 <채세영이야기>와는 달리 양반의 醜절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구성상 가까운 범주에 드는 소설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이 점은 이 다음에 언급하는 <춘향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기녀와 小吏의 행태 및 의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들 작품을 상호 비교·대조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33) <운영전>의 양반 풍류의식과 운영의 애정회구의식에 대해서는 조광국, 앞의 책, 164-187쪽.

34) 권두환 교수는 <배비장전>이 신참 양반관료의 “新參禮” 입사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지적하였다(권두환, 『배비장전 연구』, 『한국학보』 17, 일지사, 1979, 119-124쪽). 이 논의를 확대하면 중옥, 이생, 배비장 등은 양반관료가 되기 전의 신참자가 양반관료 사회에 처음 들어가는 入社式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입사식은 양반관료 사회의 한켠에 팽배해 있던 풍류향락의 생활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는 <채세영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소설작품에는, <채세영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방관의 명령에 따라 궃절모의에 가담하는 기녀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되어 있다. 종옥(<종옥전>), 이생(<오유란전>), 배비장(<배비장전>) 등 남주인공을 통해 지방관료의 風流와 享樂生活에 대하여 일차적인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sup>35)</sup> 이는 양반 풍류세대에 대한 인식이 16세기의 경우와 조선후기의 경우가 相異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 소설작품은 남주인공에 초점을 맞출 뿐이고 기녀의 자의식은 여전히 서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채세영이야기>에서 기녀와 통인들의 개별적인 행동이나 의지가 드러나지 않은 채 지방관의 궃절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춘향전>에서는 확연히 달라진다. 춘향은 기녀로서 정조를 주장하면서 이도령의 육체적 관계 요구를 거절하고, 방자는 女色을 밝히는 이도령을 회화적으로 풍자하는데, 이러한 춘향과 방자의 행태는 <채세영이야기>에서의 기녀와 小吏의 행태와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채세영이야기>가 나온 16세기와 <춘향전>이 나온 18-19세기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차이와 상응한다. 이 시기에 오면 양반 풍류세대의 유희의 대상, 향락의 수단이기를 거부하는 기녀들의 의식이 표출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춘향의 자의식은 양반관료 중심의 풍류세대에 대한 저항의 성향을 띤다. <춘향전>에서는 <종옥전> <오유란전> <배비장전> 등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보다 더욱 강하게 양반의 풍류세대에 저항함으로써 양반의 풍류세대가 왜곡되어 있음을 한층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부윤과 기녀, 혹은 이에 가세하는 판관의 공모와 트릭, 그리고 궃절당하는 주인공과 그의 이별 눈물의 극적 효과 등 구성과 미감을 지니고 있는 <채세영이야기>의 세계는, 양반 중심의 풍류세대라는 공고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

35) 종옥, 이생, 배비장 등이 양반 풍류생활에 대해 일차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논의는 박일용의 연구 성과를 힘입었다(박일용, 『조선후기 궃절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학보』 51집, 52집, 일지사, 1988;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389-391쪽, 401-402쪽).

36) 조정에서 기녀와의 향락세대를 단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조광국, 앞의 책, 47-52쪽). <종옥전> <오유란전> <배비장전>과 같은 조선후기에 출현한 작품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

진 것이면서, 다시 양반 중심의 풍류세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V. 마무리

본 논문은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인 <채세영이야기>를 대상으로 하여 16세기 양반의 풍류세대의 한 양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세영이야기>의 구성적 특징은 府尹과 기녀, 혹은 이에 가세하는 관관의 공모와 트릭, 그리고 주인공의 이별 눈물의 극적 효과 등으로 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구성은 ‘毀節=諷刺’의 틀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주변인들의 웃음은 훼손 대상을 풍자하는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니라 기녀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양반관료에 대해 인지상정의 성향, 해학적 성향을 띠는 것임을 밝혔다.

둘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6세기 양반과 기녀의 풍류세대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적 담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시 중종시대에는 연산군 시대의 기녀 풍속을 정화하고자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였음과 한편으로 그러한 시도는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양반의 풍류는, 모든 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녀와의 유희를 일상적 생활의 하나로 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 이야기는 ‘기녀로 수청을 들게 하는 지방 풍속’과 ‘그러한 풍속을 금하는 조정의 단속’이 서로 충돌하던 사회문화적 정황을 배경으로 하되, 양반관료의 기녀와의 애정행각 내지는 유희행각을 지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양반관료의 애정행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당대 양반관료의 풍류세대의 한 단면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채세영이야기>에서 기녀는 양반 애정행각의 수단, 내지는 향락의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살펴보고, 이 이야기는 양반관료들의 풍류가 기녀를 비롯한 平·賤民의 희생 위에서 향유되고 있던 세대를 담아내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신분적, 사회적 한계는 16세기 중종시대 양반관료의 풍류세대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하여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선시대 풍류세태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펼쳐져야 하리라 본다.

주제어 : 체세영이야기, 문화론적 연구방법, 양반풍류, 웃음, 풍류세태, 기녀, 인지상정의 웃음, 해학적 웃음

## 참고문헌

- <蔡世英以內翰>(장서각본 『於野談』)  
<蔡壽以內翰>(만종재본 『於野談』)  
<懶齋蔡襄靖壽>(연세대본 『記聞叢話』)  
<內翰抑屋忍涕淚>(가람본 『東野彙輯』)  
<柳恒齋雲>(연세대본 『記聞叢話』)  
<柳雲傳>, 『己卯錄 補遺』~1(『국역대동야승』~14, 민족문화추진회, 1975, 52쪽)  
『용재총화』(『국역대동야승』~1, 민족문화추진회, 1975)  
『송계만록』(『국역대동야승』~14, 민족문화추진회, 1975, 286-287쪽)  
『숙종실록』~권10, 6년 10월 병신.  
『연산군일기』~권58, 11년 6월 임술; 권59, 11년 8월 갑자; 권63, 12년 9월 기묘.  
『중종실록』~권1, 1년 9월 무인; 권1, 1년 10월 경오; 권1, 1년 9월 계미; 권1, 1년 9월 임오; 권8, 4년 6월 무진; 권12, 5년 10월 병신·갑진, 11월 정사; 권16, 7년 7월 임진; 권32 13년 4월 기사; 권34, 13년 7월 무신; 권35, 14년 1월 기유; 권36, 14년 9월 기유·경술; 권101, 39년 1월 기미.  
권두환, 『배비장전 연구』, 『한국학보』~17, 일지사, 1979, 119-124쪽.  
김기동, 『문학사상』~통권 129, 1983년 7월호.  
김종철, 『배비장전유형의 소설연구』, 『관악어문연구』~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5, 206-212쪽.  
김종철, 『중세 해체기의 두 웃음』,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박일용, 『조선후기 회절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학보』~51, 52, 일지사, 1988.  
박일용, 『조선후기 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389-391면, 401-402쪽.  
여세주, 『정남회절설화의 유형성과 그 의미』, 『어문학』~50, 한국어문화회, 1989.5.  
여세주, 『남성회절소설의 실상』, 국학자료원, 1995, 69-79쪽.  
이원수, 『<삼선기>의 종합적 고찰』, 『문학과 언어』~7,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6.

이원수, 『남성왜절설화의 실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21, 국어교육연구회, 1989.12.

조광국, 『16세기 초엽 기녀제도 개편 양상-연산군 시대를 중심으로-』, 『규장각』 23,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31-46쪽.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47-52쪽, 164-187쪽.

로버트 단턴, 『고양이 대학살』, 문학과 지성사, 1996.

린 헌트, 『프랑스혁명의 가족 로맨스』, 새물결, 1999.

시드니 민츠, 『설탕과 권력』, 지호, 1998.

클리포드 기어츠, 『문화의 해석』, 까치, 1998.

<Abstract>

Aspect of Yangban-Pyungryu(兩班風流) in  
<Chaeseyeong-iyagi>

Jo, Gwang-Guk

This dissertation is research about Yangban-Pyungryu(兩班風流) which is one of cultural appearance in Yi-dynasty, Korean old dynasty. Main data of this treatise is <Chaeseyeong-iyagi>.

The result is as following. First, <Chaeseyeong-iyagi> is composed of conspiracy, trick and master's separation tear. That man forms sexual relation with Kisaeng does not mean that he is satiricaled. Onlookers' laugh wears inclination that look sympathetic feeling about government official who break up with Kisaeng, not that wear inclination that satirical master. Second, backing of this story was handled in this treatise. Jung-jong(中宗) King tried to purify moral depravity of Youn-san(燕山) king. Such control is unpractised properly. In connection with it Yangban(兩班) is doing amusements with official kisaeng, that is one of phenomena of Yangban-Pyungryu. cultural discourse of <Chaeseyeong-iyagi> is discussed. "Local manners that Yangban forms sexual relation with Kisaeng" and "Control of Government that prohibit such manners" collided each other in this story. This story is conjuring affection action with Yangban's official kisaeng positively with such social-cultural situation. Affirmative awareness about Yangban's affection is deep connection with Yangban-Pyungryu culture. Composition way of this story which was made of conspiracy, trick, separation tear was materialized in frame of Yangban-Pyungryu Culture, again materialized such frame firmly.

Finally, Official Kisaeng is represented as means of Yangban's affection

in <Chaeseyeong-iyagi>. Yangban-Pyungryu is enjoyed in commoner and man of low birth's sacrifice including official Kisaeng. This limit is assumed as the limit of Yangban-Pyungryu(風流) culture in 16th century in Korea.

Key Words : Chaeseyeong-iyagi, Kisaeng(妓生), Local manners,  
Social-cultural situation, Yangban-Pyungryu(兩班風流),  
Cultural discourse.